

OPA9)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경남 도민 반응 특성

김은별·호승모¹⁾·박종길¹⁾

환경연구소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¹⁾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고농도 시기(12~3월) 차량 운행제한 방향 제시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식과 수용의사 및 지원책을 만 19세 이상, 인구비례로 18개 시·군에 할당하여 경남 주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조치를 통해 농도를 낮추는 경남형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남형 미세먼지 대책 도입을 위한 현황 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산업, 발전, 수송 등 분야별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2. 자료 및 방법

설문조사 자료의 경우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 및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여러 선행연구(박진호와 이창관, 2019; 김동연 외, 2019) 및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절관리제를 검토하여 29개 문항을 만들었으며,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 581명을 대상으로 4개 권역(서부권 시·군 지역, 동부권 시·군 지역)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관련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도민들이 계절관리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 계획 또는 추진되어야 할 대책은 무엇인지, 도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대책들은 무엇인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차량운행 제한관련 필요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시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차량보유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8.6%, 그중 직접 운전하는 비율은 76.3%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대부분이 직접 운전하며 지역별로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설문결과 72.7%가 계절관리제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있어 여러 대책 중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응답자 455명 중 2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차량 2부제로 25.49%, 노천소각 금지 및 단속이 11.4%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남연구원에서 조사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참여의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약 73%가 차량 2부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차량 2부제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와 차량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경남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할 경우 무엇보다 도민에 대한 많은 홍보가 절실하며, 관련 대책으로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차량 2부제, 노천소각 금지 및 단속 등의 계절관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 김동연, 최민애, 윤보미, 2019,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방안, 경기연구원, GRI 정책브리프 2019-09, 31.
 박진호, 이창관, 2019,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방안 연구 -차량 5등급제를 중심으로-, 경남연구원, 현안연구 2019-08, 41.
 최유진, 최기철, 이승민, 이혜진, 2019,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방안, 서울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연 2019-PR-17, 107.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0년도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20-11-1-40-42).